

# 1994년도의 세계 경제와 산업별 전망

韓 振 奎\*

바쁘게 돌아가던 금년도 이제 한달을 남겨놓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금년은 미국, 일본, EC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또는 경기회복의 지연) 속에서 보낸 한 해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의 무역도 심한 침체현상을 보인 한 해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신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지속되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면서 한 해를 보내왔고 금융실명제 실시,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의 조기실시 등 경제제도의 획기적 개혁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지난 1년간의 경제성과를 점검해 보고 다가오는 1994년의 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각별한 의의를 지닌다. 이하에서는 다소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공표된 통계치들을 중심으로 지난 한 해의 경제성과와 내년도의 세계경제, 그리고 국내의 산업별 전망을 간략히 고찰하

고자 한다.

## 1. 1993년도의 평가

1993년도중 세계경제는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금융긴축정책을 실시해 왔고 그 여파로 세계경제는 경기조정양상을 보이며 1991년도에는 0.6%, 1992년도에는 1.8%의 저성장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부진양상은 금년도에도 지속되어 금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은 작년도 수준에도 못 미치는 1.2%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부진양상은 선진국 경기의 회복지연에 기인한다. 당초 회복세가 예상되던 일본경제는 정치불안과 엔고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에 직면하면서 상반기중에 전년도 같은 기에 비하여 0.6%의 성장감퇴를 보였고 하반기에도 이같은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産業研究院 動向分析室 責任研究員

독일경제의 불경기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독일경제는 상반기중 전년도 같은기에 비하여 3.5%의 성장감퇴를 보였고 이에 따라 인근 유럽국가들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더우기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던 미국과 영국경제가 예상외로 느린 회복속도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경기침체는 심화되었다.

세계경제의 경기침체는 국제무역의 위축으로 직결된다. 수입액을 기준으로 본 세계무역은 금년도중 전년도 대비 1%가 늘어나는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세계무역이 이처럼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침체가 그 주된 요인이긴 하나 세계무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이 2년이나 협상시한을 넘기면서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가 EC, NAFTA 등 지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금년도중 선진국의 수입은 전년도 대비 0.8%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수입은 금년도중 약 10% 정도 늘어날 것인 반면에 EC의 수입이 극심한 유럽경기 침체로 인하여 7% 가까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들의 수입도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6%라는 비교적 저조한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중에서는 ASEAN, 중남미국가들의 수입이 10%대의 신장이라는 호조를 지속할 것인 데 비해 중동제국의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2%대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공산권 경제에서는 중국의 수입이 공업화의 진전, 대외개방의 확대 등에 힘입어 20%가 넘게 신장할 것인데 비해 경제조정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수입은 4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내경제는 최근까지도 뚜렷한 경기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 GNP 성장률은 지난해 4/4 분기에 2.8%를 기록한 이후 금년도 1/4 분기에 3.4%, 2/4 분기에 4.2%로 소폭이나마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 전체로는 3.8% 성장에 그쳐 신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가졌던 기대감이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구성요소별로 볼 때에는 투자부진, 특히 설비투자부진이 경기부진의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소비 및 수출은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인 설비투자 회복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1〉 주요 경제지표의 움직임

(단위: 전년동기비, %)

구 분	1992				1993	
	1/4	2/4	3/4	4/4	1/4	2/4
소 비	8.5	7.4	5.9	5.6	5.4	5.1
수 출	11.4	5.9	12.8	-1.2	7.1	5.2
고정자본형성 (설비투자)	6.5	-0.1	-3.3	-8.2	-5.8	-0.6
	8.5	4.5	-3.1	-10.2	-10.1	-1.5

자료: 한국은행

최근의 설비투자부진은 기본적으로 국내경기 위축과 향후 경기전망의 불투명, 선진국의 경기부진과 이에 따른 수출수요 감소, 신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 설비투자를 선도해온 일부 장치업종의 과잉설비 조정 등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정도는 투자증가율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며, 현재와 같은 투자부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 2. 세계경제 전망

### (1) 주요국의 경제전망

1994년도의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994년도의 세계경제성장률은 금년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2.6%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미국경기가 현재 수준보다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오랜 침체를 보인 일본과 유럽지역의 경제도 내년도에는 다소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경제는 내년도에도 저금리로 대표되는 금융완화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수준을 상회하는 3%대의 성장률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의 공정할인율은 3%로서 기록적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리안정추세의 지속으로 기업의 투자욕과 소비자의 소비심리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경제는 현재 단기적 조정과정을 겪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의 삭감계획에 따라 민간수요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또한 부동산 경기과열에 따른 상업용 건물의 공급과잉에 대한 조정과 국방비 지출 삭감으로 인하여 미국내 특정지역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4년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수출이 다소 증가할 것이나 미국내의 소비지출과 자본재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도 7% 정도가 증가할 것이므로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경제는 1994년도중 2.5%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경제가 내년도에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수요측면에서 산업수당 및 자산소득 증가, 소득세 감면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증

가하고 있고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내구소비재의 스톡(stock)조정이 완료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994년도에는 기업의 설비투자도 금리인하, 주택스톡의 조정완료 및 감세 등에 힘입어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더하여 일본정부는 공공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가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4년도에는 해외부문도 중국과 ASEAN의 경기활황, 미국의 경기회복 등에 따른 수출 증가로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EC경제는 현재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EC경제는 1994년도중 1.5% 안팎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별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독일 등 주요국의 경기침체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재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국가간의 정책협조가 이루어진다면 EC경제는 이들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내년도 하반기 이후 경기가 다소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경제가 1994년도에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개도국 경제는 1994년도에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경제에 상대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경제는 선진국 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금년도보다 높은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동지역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원유가격이 1994년도 중에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도보다 성장률이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94년도는 구공산권 경제가 성장감

퇴에서 벗어나는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994년도에는 그동안 시장경제제도에 적응 과정을 겪어온 구공산권국가들이 교역확대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 벗어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이들 국가들은 EC지역과의 교역의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구공산권 경제의 내년도 성장정도는 EC의 경기회복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세계경제 성장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구 분	1992	1993		1994	
		상반기(추정)	하반기		
세 계	1.8	0.9	1.5	1.2	2.6
선진국	1.5	0.8	1.2	1.0	2.4
미 국	2.1	2.2 <sup>1)</sup>	1.1 <sup>1)</sup>	2.3	3.0
일 본	1.5	-0.6	2.2	0.8	2.5
E C	1.1	-1.7	0.6	-0.5	1.5
독 일	2.0	-3.5	-1.4	-2.5	0.7
영 국	-0.6	1.0	1.9	1.5	2.5
프 랑스	1.8	-1.0	-0.3	-0.7	1.6
개도국	6.1	4.5	4.7	4.6	4.8
구공산권	-15.5	-3.4	-1.3	-2.3	0.8

주: 1) 전기비 연율임.

## (2) 무역환경

1994년도에는 세계무역도 다소 회복되어 1993년도 수준을 크게 능가하는 7%선의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년말을 고비로 세계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금년말 타결 시한을 맞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다면 국제무역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볼 때 선진국의 수입은 지난 3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5%대의 신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는 미국의 수입이 자본재를 중심으로 7%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EC의 수입도 완만하나마 경기회복에 힘입어 5%선의 증가

세를 시현할 것이라는 분석을 들 수 있다. 더우기 일본은 미국, EC 등과의 통상마찰 해소차원에서 수입확대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 높은 신장세가 예상된다.

개도국의 수입도 1994년도에는 예년의 수준인 9%대의 신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중에서는 중동지역의 수입이 계속되는 유가하락과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2%대의 감소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ASEAN과 중남미 제국에서는 공업화의 진전과 경기활성화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 수입자유화 등 대외개방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10% 이상의 신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공산권의 경우에는 중국의 수입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및 동구 제국의 수입도 경제구조 조정과 함께 수입수요가 늘어나 10~20%의 신장세가 예상된다.

〈표 3〉 세계무역전망(수입금액 기준)  
(단위 : 전년동기비, %)

구 분	1992	1993		1994	
		상반기	하반기		
세 계	5.9	-0.5	2.5	1.0	7.0
선진국	4.3	-2.5	0.9	-0.8	6.4
미 국	9.1	10.8	10.1	10.4	7.6
일 본	-1.6	3.0	11.7	7.4	11.5
E C	4.9	-9.5	-4.2	-6.9	5.5
개도국 <sup>1)</sup>	10.2	6.0	7.8	6.9	9.0

주: 1) 구공산권지역 포함.

## 3. 국내경제 전망

### (1) 거시경제지표 전망

1994년도의 국내경제는 엔고의 지속, 저유가, 선진국의 경기회복 등 대외경제여건이 호전되고, 대내적으로도 금융실명제 등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들이 정착되면서 완만하나마 경기회복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정도는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수출이 얼마나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1994년도중 우리 경제는 경기가 다소 회복되기 시작하여 연간 6.1%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성항목별로는 국내수요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가 경기회복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와 금융실명제 정착 이후의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금년도보다 다소 높은 5.1%, 그리고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5.2% 선에 머물 전망이다.

경기부진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설비투자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1년여에 걸친 투자부진을 보전할 필요가 커지는 데다 수출을 중심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7% 선의 증가가 예상된다. 건설투자도 고속전철, 신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대폭 확충되고 매년 50만~60만호의 주택건설이 계획되고 있어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다만 금융실명제 보완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시책이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여 큰 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금년도보다 6.4%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재고투자는 경기부진에 따른 재고조정과 물류기법 개선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993년도중 2.7%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자본 형성은 1994년도중 증가세로 반전되어 5.2%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1994년도의 수출은 금년도 대비 10% 정도

증가한 902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는 우선 금년 들어 달러화에 대한 엔화가치가 20% 가까이 절상됨으로써 엔화가치 절상에 따른 수출증대효과가 금년도 하반기 이후 서서히 나타나고 1994년도중에도 엔화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엔화가치 절상으로 일본제품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정밀기계 등 중화학제품의 수출신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현상을 겪고 있는 경공업제품의 수출은 엔화가치 절상에도 불구하고 크게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1994년도에는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수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부진을 보이고 있는 미국, EC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도 1994년도에는 이들 지역의 경기회복과 엔화가치 절상이 맞물려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두 차례나 협상시한을 연장해 가면서 금년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 국가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되면서 대선진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수입은 1994년도중 8%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896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금년도 상반기중 부진하였던 설비투자가 금년말 이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본재 수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내년도부터 수출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4년도중 우리 경제는 수출회복세의 본격화에 힘입어 약 38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무역외수지(이전수지 포함)는 1994

년도에도 연간 18억달러 내외의 적자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1994년도중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는 20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할 전망이다.

〈표 4〉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구 분	1992	1993		1994	
		상반기	하반기		
실질GNP성장률	4.7	3.8	4.6	4.2	6.1
(제조업성장률)	(4.8)	(1.8)	(3.7)	(2.8)	(6.7)
최종소비지출	6.8	5.3	4.7	5.0	5.2
(민간소비)	(6.4)	(5.2)	(4.4)	(4.8)	(5.1)
총자본형성	-5.3	-6.1	0.7	-2.7	5.2
(설비투자)	(-0.8)	(-5.7)	(1.0)	(-2.3)	(7.0)
(건설투자)	(-2.6)	(0.3)	(1.5)	(0.9)	(6.4)
제화와 용역의 수출	9.8	9.7	8.5	9.1	9.5
제화와 용역의 수입	2.9	0.7	4.9	2.8	6.8
통관기준 수출입					
수 출(억달러)	766	391	429	820	902
(증가율)	(6.6)	(6.4)	(7.6)	(7.0)	(10.0)
수 입(억달러)	818	413	417	830	896
(증가율)	(0.3)	(-1.5)	(4.5)	(1.5)	(8.0)
수출입차(억달러)	-52	-22	12	-10	6
국제수지					
무역수지(억달러)	-22	-2	24	22	38
경상수지(억달러)	4.6	-10	14	4	20
물가 및 고용					
소비자물가상승률	6.2	4.2	1.3	5.5	5.6
생산자물가상승률	2.2	1.6	1.1	2.7	3.0
실업률	2.4	2.8	3.0	2.9	3.1

주: 물가는 전기말 대비 상승률, 실업률은 계절조정치임.

(2) 산업별 전망

1994년도중에는 소위 '양극화 현상'이 매우 두드러질 전망이다. 즉, 중화학공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경공업부문의 경기회복은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조선, 전자 및 전자부품, 일반기계 산업의 성장세가 매우 두드러질 전

망인데, 이들 업종은 금년도에 비해 10% 이상의 높은 생산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수요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석유화학 등의 산업은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그 비중이 낮아 내년도에도 큰 폭의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공업부문의 구조적 경기부진은 내년도에도 큰 폭의 개선이 힘들 전망이다. 특히,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신발산업의 경기는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경기침체가 장기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경공업중에서는 타이어산업의 경기가 비교적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타이어산업은 1994년도중 승용차용 타이어부문이 수출과 내수 공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설비 및 건설투자가 늘어나면서 상용차용 타이어 수요도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표 5〉 주요 산업별 생산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구 분	1992	1993		1994	
		상반기	하반기		
家 電	-4.6	0.8	12.8	6.2	8.6
産 業 用 電 子	1.6	25.0	13.1	18.0	14.2
電 子 部 品	4.6	7.9	11.3	9.6	11.5
一 般 機 械	-3.1	-2.0	9.4	3.3	10.5
自 動 車	15.5	17.4	9.9	13.5	11.4
造 船	3.2	-9.8	-24.0	-17.9	14.7
鐵 鋼	3.8	16.9	16.2	16.5	2.5
石 油 化 學	36.9	8.8	10.1	9.5	7.6
織 維	2.5	12.0	3.2	7.5	6.5
신 발	-19.0	-26.5	-26.7	-26.6	2.7

주: 家電, 産業用電子, 電子部品, 一般機械는 금액기준(달러화 표시), 그외는 물량기준 증감률임.

한편 소위 '양극화 현상'은 생산측면에서뿐 아니라 수출에서도 나타날 전망이다.

1994년도중에도 금년도에 큰 폭의 수출증가세를 보인 바 있는 산업용 전자, 일반기계 및 자동차 등의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져 19~34%의 높은 신장세가 예상된다. 자동차의 수출증가와 그동안의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타이어 수출도 큰 폭의 신장세가 예상되는데, 1994년도중에는 자체 브랜드에 의한 수출증가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한편 조선산업의 경우에는 세계 신조수요(新造需要)의 꾸준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상반기와 같은 다량의 선박수주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나 내년도의 수출규모는 금년도보다 9% 가량이 늘어나 37억달러 내외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의 경우에도 임금상승 극복을 위한 합리화 투자 및 고부가가치제품으로의 기술개발 투자가 결실을 거두어 지속적으로 높은 수출신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강산업은 핫코일의 대미 수출재개, 엔고에 의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수증

가에 따른 수출여력 부족으로 큰 폭의 수출증가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가격경쟁력 저하 및 이에 따른 바이어 이탈 현상을 겪고 있는 신발산업과 섬유산업 등에서는 5~5.5%의 낮은 수출증가율이 예상된다.

#### 4. 평가 및 시사점

이상을 종합해 볼 때 1994년도중 우리 경제가 직면하게 될 대내외 경제여건은 금년도보다 나은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타이어산업에도 적용되며 타이어업계 역시 금년도보다 양호한 경영여건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수요의 증가, 자동차 수출 및 내수의 증가, 설비 및 건설투자의 확대 등과 같은 경제현상들은 타이어업계에 새로운 수요창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가시적인 경영성과로 귀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오늘날 국제시장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동태적 경쟁력을 근간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타이어업계가 겪게 될 시련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마케팅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단기적 경영성과를 도모하는 일면,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와 국제화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호경기의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여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잠식한 1980년대 후반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은 배가 된다.

(표 6) 주요 산업별 수출전망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비, %)

구 분	1992	1993		1994
		상반기	하반기	
家 電	60(-1.5)	29(6.0)	35(12.6)	65(9.5)
産 業 用 電 子	42(8.5)	25(31.2)	30(25.6)	54(28.1)
電 子 部 品	104(11.8)	53(2.2)	57(8.3)	110(5.3)
一 般 機 械	31(11.1)	19(19.8)	19(14.8)	38(18.8)
自 動 車	28(22.9)	23(67.8)	21(44.1)	44(55.8)
造 船	37(0.8)	15(-15.6)	20(-4.4)	34(-9.5)
鐵 鋼	54(19.1)	31(27.8)	33(11.3)	64(18.7)
石 油 化 學	14(63.4)	7(14.5)	8(-3.5)	15(4.3)
織 維	158(1.5)	77(-2.1)	82(4.0)	159(1.0)
신 발	31(-12.0)	12(-24.0)	13(-16.0)	26(-19.0)
總 輸 出	766(6.6)	391(6.4)	429(7.6)	820(7.0)